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33호 / 05월 19일

사스(SARS)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 ☐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금년도 중국경제가 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7%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소비는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조만간 회복될 것이며, 투자 역시 단기적인 감소추세를 거쳐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 사스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은 관광업, 요식업, 교통운수업, 오락산업 등 주로 서비스 산업임.
 - 최근 북경지역에서는 사스가 진정되고 있으나 내륙 농촌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과 농업부문 역시 영향을 받을 것임.
- ☐ 중국정부는 사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확대정책 견지, 재정지출 증가,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2.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금년도 중국경제가 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은행은 중국경제가 여전히 고도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은 0.2% 포인트 정도 하락한 7.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봄.

-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거시경제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청화대학 등 학계 전문가들도 모두 7% 이상 성장을 전망함.

○ DRC의 장리쥔(張立群) 연구원은 사스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으며,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함.

○ 청화대학 후안강(胡鞍鋼) 교수는 중국경제는 광대한 내수시장, 높은 재정수입, 외부충격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등으로 인해 사스에도 불구하고 8-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북경사범대학 금융연구중심 중웨이(鍾偉) 교수는 중국경제는 1/4분기의 고도성장 시현, 내생적 성장능력 제고, 경기호황, 물가 회복 등에 힘입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함.

- 그러나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과 위생정책관리연구중심의 하이원(海聞), 자오충(趙忠), 왕젠(王建), 호우전강(侯振剛) 교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6-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시기별로는 2/4분기 경제성장이, 지역별로는 광둥과 북경 등 사스가 심각한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중국경제의 가장 강력한 성장엔진인 장강삼각주(상해, 강소, 절강 등)와 환발해만 지역(특히 산둥, 요녕 등) 등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지난 4월 24일 *Far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중국정부의 문건과 8개 해외 금융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사스로 인한 각국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중국 22억 달러, 홍콩 17억 달러, 인도네시아 4억 달러, 한국 20억 달러, 말레이시아 6.6억 달러, 싱가포르 9.5억 달러, 일본 11억 달러에 달할 것임.

- 한편 IMF는 사스로 인한 각국의 경제적 손실을 총 106억 달러로 추정함.

□ 소비는 사스로 인해 단기적으로 다소 감소할 것이나, 장기적인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DRC의 장리첸 연구원은 식료품, 생필품 등 소비탄성이 낮은 상품의 소비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자동차, 주택, 가구 등 대형 소비품목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한편 약품, 소독용품 등의 소비는 크게 증가함.

□ 투자는 사스로 인한 실행 시기 조정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중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인식 때문에 위축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장리첸 연구원은 단기적인 외국인투자 감소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나, 저렴한 인건비와 광대한 소비시장, 높은 성장잠재력 때문에 외국인투자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3. 개별 산업부문에 대한 영향

가. 관광산업

□ 관광업은 사스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상차이증권(湘財證券)의 자오메이(趙玫)는 금년도 중국의 관광수입이 4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북경대학 경제연구중심과 위생정책관리연구중심의 보고서는 국내외 관광수입 손실액이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o 금년도 해외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실액은 작년 대비 50-60% 감소한 900억 원을 기록할 것임.
- o "5·1"절 연휴 기간중 국내관광객 감소 손실액은 2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전체 국내관광수입 손실액은 작년 대비 10% 감소한 500억 원에 달할 것임.
- 중국의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상위 15개국 중 13개국이 중국 여행을 금지하였으며, 중소여행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고 호텔 객실 점유율은 20-30%에 불과함.
- 그러나 관광수입이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여, 관광수입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나. 항공산업

- ☐ 항공산업은 화물과 여객 운송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공항 등 항공 관련 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동방항공은 홍콩과 일본 항공편이 30% 감소했다고 발표함.
- 증권항공업계 리양(里昂)의 애널리스트는 금년 중국 남방항공의 손실액은 15-20%, 동방항공은 20-2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다. 금융산업

- ☐ 금융산업은 개혁과 개방의 지연, 은행의 이윤 감소와 부실대출 증가, 증권시장의 침체 등에 직면할 것임.

- 첫째, 사스가 장기화 될 경우 금융산업 개방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바, 일례로 5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QFII의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알려짐.
- 둘째, 사스의 지속으로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부도가 늘어날 경우 은행의 대출 하락에 따른 이윤 감소, 부실대출 증가 등이 예상됨.
- 셋째, 신용카드 업무 등의 감소로 은행의 이윤도 크게 감소할 것임.
- 넷째, 증권시장은 신규주식 발행이 급감하고 있으며, 종합주가지수도 크게 하락함.

라. 기타 산업

- ☐ 한편 서비스업 부문의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농업, 제조업 등 관련 산업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음.
- ☐ 그러나 사스의 영향으로 의약산업(의료기기 포함), 일부 방직업(마스크 및 보호복), 세제 및 소독용품, 통신산업 등 부문은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유관자료에 의하면 사스 발생 이후 홍콩과의 국제장거리전화와 인터넷전용선 서비스 부문은 20-30% 성장함.

4. 중국정부의 대책 및 정책 방향

- ☐ 전문가들은 사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수 확대 견지, 재정지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함.
- 북경대학 경제연구중심과 위생정책관리연구중심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주택, 자동차 신용대출 등 도시지역 소비촉진 정책과 농촌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실시를 주장.

- 청화대학 후안강 교수는 사스 방지를 위해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북경대학 경제연구중심과 위생정책관리연구중심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지출 이외에 공공위생국채의 발행을 건의함.
 - o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23일 20억 원의 사스방지 및 치료 기금을 설립했고, 각 지방정부도 8억 원의 관련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o 금년 1/4분기 재정수입은 5,206억 원에 달해 최근 10년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는데, 사스 관련 재정지출 확대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스 확산을 계기로 성장세를 보이는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히 제기됨.
- 최근 화상회의 설비, 인터넷 케이블 서비스 이외에 가정오락산업과 관련된 DVD, VCD, 오락기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 또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년 광조우국제박람회는 거래액의 1/3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음.
- 한편 금후 중국정부는 이번 사스 확산을 계기로 GDP의 양적 증가 이외에,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건강 및 보건 등 질적 성장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예상됨.(***)